“내 생각 사로잡히면 단순한 진리 못 봐”

인도 메신저 ‘하이크’ CEO 불교에 매료

기업가치 약 15조에 달하는 인도 토종 모바일 메신저 앱 ‘하이크’의 CEO가 불교에 매료돼 화제다.

그 주인공은 카빈 바르티 미탈(28). 인도 통신업계의 선두주자 바르티 에어텔을 설립한 9번째 거부 수닐 바르티 미탈의 아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월 16일(현지시간) 인도 토종 모바일 메신저 앱인 ‘하이크(Hike Messenger)’가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해 기업가치가 14억 달러(약 1조 55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애플 하청업체로 유명한 대만 홍하이정밀(폭스콘)이 주도한 투자에서 하이크가 1억7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밖에도 카빈 바르티 미탈 하이크 창업자 겸 CEO(최고경영자)는 뉴욕 소재 투자회사 타이거글로벌매니지먼트와 인도 재벌 바르티그룹, 일본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카빈의 사업에 대한 열정과 패기의 원동력이 ‘불교’라 알려지며 주목을 끌고 있다.

카빈은 부유한 환경과 가족경영을 하는 인도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패기와 열정이 컸기에 인터넷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패기는 불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빈은 “모두들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릴까봐, 혹은 실패할까봐 걱정한다. 나 또한 실패를 겪는다. 대신 실패를 겪을 때 마다 가방을 매고 돌아다니며 세상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단순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선불교에 매료됐다.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진리가 불교에 담겨있다. 당신은 절대적 진리에 대해

‘하이크’ 기업가치 1.5조원 달해
中·대만 1.7억 달러 자금조달
페북 ‘왓츠앱’에 도전장 내기도
CEO 열정·패기 배경은 ‘불교’

반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대적 진리에 확신할 수도 없다. 세상의 대부분은 상대적 진리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당신이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다”며 “일을 할 때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쉽게 풀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카빈은 아버지의 창업가 정신을 물려받아 10대 때부터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18세 때 자전거 크랭크축을 만들고 스즈키 휴대용 발전기를 수입했다. 20세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앱스파



기업가치 약 1.5조에 달하는 인도 토종 모바일 메신저 앱 ‘하이크’의 CEO 카빈 바르티 미탈(28·사진)이 불교에 매료돼 화제다. 사진출처=QUARTZ.com

크(AppSpark)’를 세웠다. 이 회사는 2009년에 영화 티켓을 구매하는 앱을 출시했다. 2012년엔 스마트폰 메신저 앱 ‘하이크메신저(Hike Messenger)’를 내놓았다. 2014년 6월엔 하이크메신저 이용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

WSJ에 따르면 하이크메신저는 바르티와 소프트뱅크로부터 2100만달러, 타이거글로벌매니지먼트로부터 6500만달러 투자를 받았다. 하이크메신저는 웹브라우저가 PC에서 하는 역할을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 목표다.

카빈은 “현재 하이크는 1억명의 유저를 확보했다.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몸집을 키워 페이스북의 왓츠앱에 대항마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텐센트의 경우 자사 메신저 앱인 위챗이 인도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하이크에 적극 투자했다. 향후 M&A(인수합병)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텐센트 대변인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내 모바일 메신저 앱 시장이 치열한 가운데 하이크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부모님과 친척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SNS 현황 정보를 숨길 수 있고, 인도 시장을 겨냥한 별도 스티커와 가상만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소량의 데이터를 사서 쓰는 인도의 소비 경향을 반영해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문자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이보형 객원기자

추락 비행기서 승객 전원 구출한 스님들

뉴욕 팔율 사원 스님들, 비행기 폭발 직전 4명 승객 구조

추락한 비행기 속 탑승자 전원을 구한 스님들이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어 화제다.

종교소식지 ‘World Religion News(이하 WRN)’는 8월 12일(현지시간) “스님들이 목숨을 내걸고 추락한 비행기 속 탑승자 전원을 구해 ‘영웅’으로 떠올랐다”며 “뉴욕 맥도너시에 위치한 팔율(Palyul) 사원 스님들이 위기에 처한 자들을 위해 이타성과 과감한 실행력을 발휘한 것은 명상으로 다져진 성숙한 내면 의식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도했다.

이어 ‘WRN’은 “몇몇 사람들은 ‘승객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승려들은 불가능한 일을 마법처럼 해냈다”며 “사람들이 당황해 비행기 속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홍콩 스님 라마 지미(30)는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8월 8일(현지시간) 발생했다. 4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엔진 1개짜리 경비행기가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뉴욕 중남부 셔냉고 카운티(Chenango County) 인근 숲에 추락했다. 지면에 충돌하기 전 비행기 동체는 나무에 떨어졌고, 즉시 화염에 휩싸였다.

지미 스님은 “사고 현장에 가까이 가보니 비행기엔 불이나 연기가 피어올랐고, 부서진 본체는 나무 가지 사이에 걸려 있었다”며 “탑승자 중 한 소녀의 입안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스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탑승자를 한 명씩 꺼냈다”고 설명했다.

스님들이 차례로 4명의 승객을 구출



뉴욕 맥도너시에 위치한 팔율 사원 라마 지미(30·사진) 등 스님들이 추락한 비행기 속 탑승자 전원을 구해 화제다.

하자마자 비행기 본체와 타이어가 폭발했다.

당시 지미 스님을 비롯한 팔율 사원 스님들은 숲 근처 사원서 한 달간 안거 중이었다. 추락한 비행기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스님들은 구조를 성공했단 사실만으로도 매우 기뻐했다. 지미 스님은 “매우 처참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탑승자들이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탑승자들은 뉴욕 남부 빙엄턴(Binghamton) 시에 위치한 윌슨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구조대원 마이클 백 위드(Michael Beckwith)는 “탑승객들이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은 ‘천운’과 다름없다”며 “우리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본체가 대부분 불타있었다. 스님들의 빠른 조치가 4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비행기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경찰은 사고 지역의 파편과 화학 물질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

박아름 기자

200년 전 방치된 불교사원 ‘다시 문 연다’

수브라마니아 스와미 사원 복원 계획 확정

불상 안치 목적… 인도 칸치푸람 지역 ‘첫 사원’



수브라마니아 스와미 사원에 안치될 예정인 불상이 발굴될 당시 나가스와미 前 고고학관리부처 총 책임자(맨 오른쪽)와 관계자들 모습. 사진출처=더 힌두

과거 불교세가 셌지만 현재는 사찰이 1곳도 남아있지 않은 인도 칸치푸람 지역에 첫 사원이 세워진다.

인도언론 ‘The Hindu’ 8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 지역 불교연합회(the Buddhist Association of Tamil Nadu)가 200년 전 문을 닫은 칸치푸람 내 수브라마니아 스와미(Subramania Swamy temple) 사원 복원에 적극 나섰다.

지역 한 학교 운동장서 발견된 9세기 제작 추정 불상을 이곳에 안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수브라마니아 스와미 사원은 이 지역서 불교가 쇠퇴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돼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타밀나두 지역 불교연합회는 당국의 철거 취소 승인을 받아냈고, 향후 파손된 건물 귀퉁이 등 복구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나가스와미 前 고고학관리부처 총 책임자는 “며칠 전 태국 총영사 고관 등과 함께 칸치푸람을 방문해 불상 및 오랫동안 방치된 사원을 둘러봤다”며 “정부와 (불상 소유자) 학교 관계자들 모두 불상을 이 사원에 안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가스와미 씨는 “과거 칸치푸람 지역서 불교세는 매우 높았다. 중국과 일본서 선종을 전파한 보디 다르마(Bodhidharma), 즉 보리달마 승려가 이 지역 출신”이라며 “특히 태국 정부는 사원 복원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곳이 불교성지순례 코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구글(Google) 사무실서 만다라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의 캘리포니아 사무실서 스님들이 불교의 ‘샌드 만다라(Sand Mandala)’를 만들고 있다. 작업은 8월 15일(현지시간) 시작됐으며, 완성 후엔 태우는 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님들은 “만다라를 태우는 의식은 영적인 믿음에 비해 인생과 물질이 덧없음을 의미한다”며 “이 의식을 행하기에 구글 사무실만큼 적당한 곳이 없을 것”이라 전했다.

사진출처=커브드캘리포니아

since1973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농협 : 356-0976-5320-43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아이들은 어른의 안식처이다. 그리고 아내는 가장 으뜸가는 친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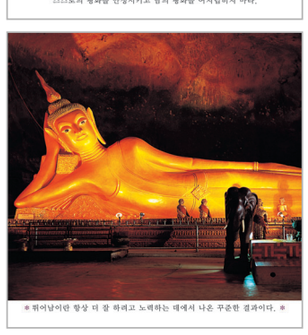

6 음.4월 신사(소) 음.5월 임오(대) 단기 4348년 서기 2015년
을미년 불기2559년
월 인행 | 월 보시 | 화 지계 | 수 인욕 | 목 정진 | 금 신정 | 토 지혜
1 어린이재일 석탄일(음력) 2 3 4 5 제헌절 6 현충일(정종)
7 8 9 10 6.10만주일생기념일 11 헌법재정 12 13
14 15 16 초파우 17 18 19 20 단오
21 22 하지 23 국회세종 24 25 6.25사변일 26 27
28 29 30 국회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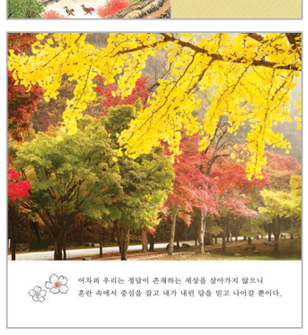
12절 : 상호인쇄


스스로의 평화를 안정시키고 남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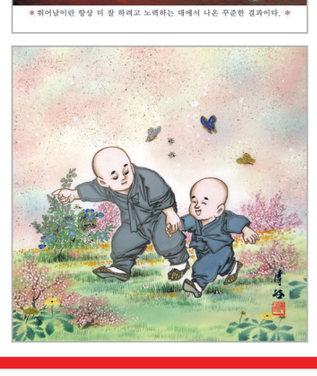

쓴건 삼키고 단건 뱉아
먹여주신 은혜
부모님의 깊은 정은 부모님 은혜
귀멸의 사랑정은 한평도 벌의 은혜
단 것은 다 벌들이 부지런히 애써 모은 것인 만큼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식 사랑 무엇이니 정 정기 어려워 그 은혜 더욱 깊은 슬픔 다시 더하네 아이만을 배불리 먹이면 어머니는 배곯음도 사양치 않네.
父母恩深重恩情無失時
吐甘無所食咽苦不須眉
愛重情難忘恩深復倍悲
但令孩子飽忘母不辞飢


진정 행복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관심받기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구하지 않는다. 그냥 삶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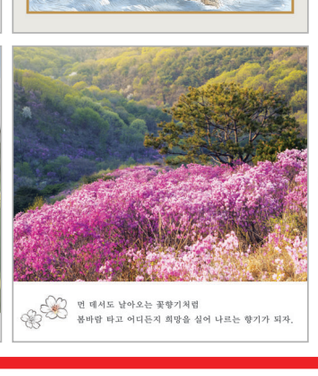

*뛰어남이란 항상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나온 꾸준한 결과이다. *


여자의 우리는 정답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니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고 내가 내린 답을 믿고 나아갈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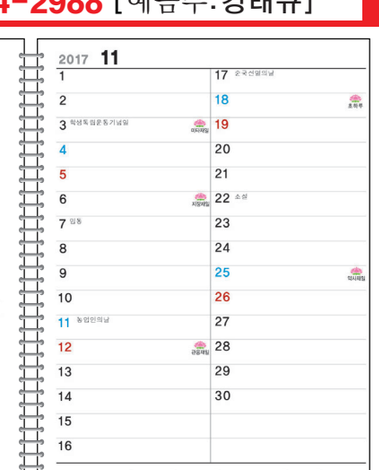

아름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대답을 얻는다.


먼 데서도 날아오는 꽃향기처럼
봄바람 타고 어디든지 희망을 실어 나르는 향기가 되자.


청명귀 꽃말 - 굳은 의지

미니 : 상호인쇄


불기 2561년 · 정유년 11 음.9월 경술(소) 음.10월 신해(대) 단기 4350년 서기 2017년
월 인행 | 월 보시 | 화 지계 | 수 인욕 | 목 정진 | 금 신정 | 토 지혜
1 2 3 개천절 4
5 6 지방자치 7 8 9 10 11 농업인의날
12 경찰의날 13 14 15 16 17 온도조절대일 18 초파 19 20 21 22 23 24 25 한글날
26 27 28 29 30 31


2017 11
1 17 순국선열의날
2 18 초파
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19
4 20
5 21
6 22 소설
7 입동 23
8 24
9 25 한글날
10 26
11 농업인의날 27
12 경찰개일 28
13 29
14 30
15
16

수첩 : 상호인쇄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26.5cm

국6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300원
• 정가 2,000원 / • 규격:30.5cm×31cm

탁상·한지달력
200부 이상 @ 1,800원
• 정가 2,000원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00원
• 100부 @7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17장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원
• 100부 @500원
• 규격 : 8.9cm×9.5cm • 매수:16장